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홈런왕 도전"

'끝내기 사나이' KIA나지완 내년 시즌 당찬 포부

연봉 1억2500만원 도장 … 군입대 미루고 맹훈련

끝내기 사나이 나지완이 '끝장 승부'를 준비한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나지완이 9000만원에서 3500만원 인상된(38.9%) 1억2500만원에 연봉 도장을 찍으면서 2년 만에 억대 연봉자 대열에 재합류했다.

나지완은 지난 2009년 한국시리즈 MVP로 우뚝 서면서 2010시즌 1억 고지를 밟았다. 팀 우승의 기세를 몰아 '끝내기 사나이' 나지완은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타자 3년차 '억대 사나이'가 됐다.

그러나 0.215의 타율과 15홈런 53타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제출하면서 올 시즌 연봉은 9000만원으로 하락했다.

나지완은 "지난해 컨디션도 좋았는데 잘해야겠다는 부담감과 자만심때문에 너무 빨리 무너졌다. 후반기 페이스가 올라왔을 때는 무릎이 좋지 않았다"며 "신인의 자세로 올 시즌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맞은 2011시즌, 나지완은 한층 노련해진 타격으로 순위 싸움을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 하지만 개막 한 달도 안돼 비골 골절상을 당하며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두 달 가량의 공백이 있었지만 나지완은 복귀전에서 4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후반기에는 홈런 퍼레이드를 펼치며 괴력을 발휘한 나지완은 올 시즌 85경기에 출전해 0.302의 타율과 18홈런 66타점을 찍었다.

나지완은 "올 시즌 시작할 때 감이 너무 좋았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때의 감을 잃지 않으려고 머릿속으로 타격연습을 했다. TV를 통해서 꼬박꼬박 경기를 챙겨보면서 그라운드 안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나지완은 시즌이 끝난 후 염증이 생긴 손바닥 수술과 골절 부위 핀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때문에 일본 마무리 캠프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광주에서 휴식도 반납하고 훈련을 이어왔다.

나지완은 "올 시즌 준비도 많이 했고 감도 좋았는데 부상 때문에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해서 아쉽다"며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군입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아쉬움이 남아 많은 생각 끝에 군입대를 1년 미루기로 했다. 그만큼 내년 시즌을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팀내 경쟁도 치열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쟁쟁한 선배들과 홈런왕 타이틀을 겨뤄보고 싶다"고 '끝장 승부'를 예고했다.

한편 KIA 외야수 신종길은 2000만원 인상된 6000만원에 도장을 찍었고, 내야수 박기남은 500만원 인상된 7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마무리 했다.

KIA는 2012 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6명 중 33명과 계약을 끝내면서 58.9%의 재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용대·정재성 "이겼다" 이용대(왼쪽)와 정재성이 15일 중국 류저우의 리닝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슈퍼시리즈 마스터스 파이널 남자단식 B조 그룹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인왕 이승기 삼계탕 쐈다

광주 FC 동료들에 '한 턱' … 내년 시즌에도 최선

이승기

광주의 프랜차이즈스타 이승기가 신인왕 턱을 쐈다.

K리그 신생팀 광주 FC에는 '계란턱'이 있다. 상을 받거나 대표팀에 다녀오는 등 좋은 일이 있으면 사우나에서 '삶은 계란'과 음료수로 인사치레를 하는 게 광주의 관례다.

월드컵과 올림픽 대표팀에 다녀온 광주의 공격 듀오 박기동과 김동섭도 몇 차례 동료들에게 삶은 계란을 대접했다.

생애 단 한번 밖에 도전할 수 없는 신인왕 자리에 오른 이승기는 계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삼계탕으로 수상턱을 냈다.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가 있었던 13일,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이승기가 선수단을 불러모아 삼계탕을 샀다.

신인상을 받은 뒤 "계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큰 걸 쏴야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던 이승기가 나름 고민해 선택한 메뉴였다.

'계란이 닭으로 부화했다'는 평가 속에 이승기는 1인분에 1만8000원하는 삼계탕에 음료수까지 넉넉하게 대접을 하면서 선수단과 신인왕의 기쁨을 함께 했다.

이승기는 "동료들이 내가 신인상을 탈 수 있도록 페널티킥이나 득점 찬스가 있어도 양보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며 "나에 대한 기대가 커진 만큼 내년 시즌도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시즌 8골2도움을 기록한 이승기는 지난 6일 열린 K리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 좀비' 정찬성 종합격투기 세계 랭킹 10위

'코리안 좀비' 정찬성(24·코리안탑팀)이 미국 격투기 전문 매체가 선정한 종합격투기(MMA) 세계 랭킹 10위에 올랐다.

정찬성은 미국 종합격투기 매체인 'MMA 위클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페더급(65.77kg 이하) 세계 랭킹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정찬성은 최근 UFC 140에서 페더급 강자 마크 호미닉(29·캐나다)을 상대로 UFC 최단 시간(7초) KO승을 거두는 등 2경기 연속으로 UFC 기록을 작성하면서 단번에 '톱10'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EPL 첼시, 2시즌에 3골 … "주급 2억7천만원 아까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팀인 첼시가 스페인 축구대표팀에서 골잡이로 활약한 페르난도 토레스(27)를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방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15일 첼시가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에 토레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토레스는 지난 2월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액인 5000만 파운드(약 897억원)의 이적료 기록을 세우고 리버풀을 떠나 첼시로 갔지만 지난 시즌 1골에 이어 이번 시즌 11경기에 출전, 2골 1도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주급이 15만 파운드(약 2억7000만원)에 달하는 토레스는 안드레 비야스 보아스 감독의 골칫거리가 됐다. /연합뉴스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를 드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여야 할 시점앞에 서있습니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기쁘고
영광스러운 해 이기도 합니다
한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들도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소중한 시점에서 호남향우 여러분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격려를 생각하며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고마움
잊지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승천하는 용의 기운처럼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 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축북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주)송죽레저관광
대표 주 풍 채 올림

064-747-8000 · 010-6865-7000

• (주)송죽레저관광 대표이사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회장(현)
• 재 제주호남향우회 부회장(현)

축!!!
초쾌속 카훼리 취항
한일블루나래 2011년 12월 23일
제주↔완도 1시간 40분 제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

⊙ 운항시간 안내

완도항 → 제주항		제주항 → 완도항	
완도발	제주도착	제주발	완도도착
09 : 00	10 : 40	12 : 00	13 : 40
15 : 00	16 : 40	17 : 50	19 : 30

여객정원 572명 / 승용차 74대 선적
※ 2012년 1월 19일까지 취항기념 특가요금 전 차종 45,000원
일반실 15,000원 (터미널이용료 별도)
우등실 18,000원 (터미널이용료 별도)
- 현재 여객 인터넷 예매 가능 (차량은 전화예약)
- 12월 20일부터 차량, 여객(동시) 인터넷 예매 예정

문의전화 1688-2100